

2012학년도 수능 해설(7~9)

7.⑤

①1-가의 ‘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 심리’는 거짓말의 양상이 아니라 거짓말의 심리적 동기에 더 가깝다. ‘사실 은폐와 위증’은 거짓말의 양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.

②1-라의 ‘근절되지 않는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’은 ‘거짓말하는 사회와 그 폐해’와 맞지도 않고 상위 항목인 ‘거짓말의 양상’과도 맞지 않는다.

③‘작성 계획’에 의하면 원인에 ‘구조 및 제도적 차원’을 언급하라고 하였다. 2-가는 사회적 분위기 차원에 해당하고, 2-나는 제도적 차원에 해당한다. 그러므로 2-다에 ‘구조적 차원’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. ‘신뢰성 없는 정보가 쉽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’는 거짓말이 성행하는 원인으로 적절하다.

④3-가는 거짓말이 성행하는 제도적인 원인에 해당하므로 2의 하위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.

⑤3-나의 ‘불신 풍조의 확산으로 사회적 소통 단절’은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하위항목으로 적절하다. ‘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’은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하위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.

8.④

①예상 독자가 지역 관청의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므로 지역 관청의 관계자가 볼 수 있게 ‘지역 관청의 홈페이지’를 기고 매체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.

②<보기>의 4번째 예시에서 헌책 베품시장이 상설화 되어 지역 명물이 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1번째 예시처럼 헌책을 버리지 말고 교환할 수 있도록 ‘벼룩시장 개설’을 방안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.

③<보기>의 2번째 예시에 의하면 책을 반값에 사서 마을문고로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있음을 사례로 들어 ‘헌책 기부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’을 방안으로써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.

④‘기대 효과’에 ‘도서 구입 비용 절감’이 등장하므로 헌책 교환 행사가 새 책 구입을 촉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 헌책 교환 행사는 새

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책을 싼 값에 구입함으로써 도서 구입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‘출판 시장에 활력 부여’ 역시 적절하지 않은 기대 효과이다.

⑤<보기>의 3번째, 4번째 예시에 의하면 헌책 교환 행사를 통해 지역이 문화적 명소가 된 사례가 있으므로 헌책 교환 행사가 ‘지역의 문화적 위상 제고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
### 9.③

①<보기>에 의하면 ‘내소사의 역사 소개’가 내용에 추가 되어야 하는데, 위 글에서는 역사소개 없이 바로 ‘꽃살문 묘사’가 등장하였으므로 그보다 먼저인 첫째 문단에 ‘내소사의 창건과 변모 과정’을 추가해야 한다.

②<보기>에서 꽃살문을 묘사할 때 ‘전체에서 부분으로’ 묘사하라고 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꽃살문의 모습을 묘사한 3단락이 먼저 오고 꽃살문의 꽃 하나하나를 묘사한 2단락이 그 다음에 와야 한다.

③꽃살문에서 꽃문양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4번째 문단이므로 4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. ㉠은 꽃봉오리의 위치에 관한 내용이므로 ㉠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

④모란의 꽃말에 관한 내용은 꽃살문의 꽃이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다. 더욱이 ‘부귀’라는 꽃말이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단어이므로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. 그러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.

⑤<보기>에서 중심소재의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였으므로 중심소재인 꽃살문이 잘 드러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.

2013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(47~50)

47.①

- 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의 국가 의사 결정 방식에 따라 ‘명령적 위임 방식’과 ‘자유 위임 방식’으로 나누고,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서술하고 있다.
- ②두 견해를 시간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.
- ③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.
- ④두 견해는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통점을 부각할 수 없다.
- ⑤둘의 견해의 장단점을 대등하게 설명하고 있지, 한 가지 견해를 지지하여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.

48.⑤

- ①㉠에서 국민의 뜻에 의거해 대표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대표자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소속 지역구 주민들이 X법안을 반대하면 대표자도 반대하여야 한다.
- ②㉠에서 국민의 뜻에 의거해 대표자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대표자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소속 지역구 주민들이 X법안을 반대하면 기권이 아니라, 반대하여야 한다.
- ③㉡에서는 대표자가 X를 반대한다고 하여 선출되었지만, 된 이후에는 대표자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.
- ④㉡에서는 아무리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이라도 대표자의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.
- ⑤㉢에서 지역구 주민의 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해도, 전체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소신대로 X에 찬성할 수 있다.

49.④

- ①4번째 문단에서 ‘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.’라고 하였다. 즉 국가에 ‘따라서는’ 도입하기‘도’하고 안하기도 한다는 것을

어감상 알 수 있으므로 ㉠의 도입이 선택적임을 알 수 있다.

②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㉠의 제도이므로 국민이 대표자가 아닌 법률안 등을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것은 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
③명령적 위임 방식은 ‘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’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. 마찬가지로 ㉠ 역시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므로 ‘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’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.

④㉠이 국민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쥐야한다는 사실은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다.

⑤㉠은 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. 4번째 문단에 의하면 ㉡의 문제점은 ‘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’된다는 것이다. 그러므로 ㉠이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.

#### 50.①

①‘실마리를 찾았습니다’는 ‘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’ 정도로 바꿀 수 있다. ‘근거를 발견하다’는 문맥적으로 적절한 표현이므로 문맥적 의미가 가깝다고 볼 수 있다.

②‘생기를 찾았습니다’는 ‘생기를 되찾았습니다’ 정도로 바꿀 수 있다. ‘근거를 되찾다’는 문맥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문맥적 의미가 가깝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.

③‘권리를 찾다’는 ‘권리를 되찾다’ 정도로 바꿀 수 있다. ‘근거를 되찾다’는 문맥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문맥적 의미가 가깝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.

④‘직업을 찾다’는 ‘직업을 구하다’ 정도로 바꿀 수 있다. ‘근거를 구하다’는 문맥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문맥적 의미가 가깝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.

⑤‘이익을 찾다’는 ‘이익을 추구하다’ 정도로 바꿀 수 있다. ‘근거를

추구하다'는 문맥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문맥적 의미가  
가깝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.